



어버이날 행사를 마치고

우리들은 개개인이 다르지만
주님을 내 맘속에 가장 귀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
한 마음이 되어 끝까지 손에 손잡고 나아갑시다.

어버이날 2부행사에서 저희들(해동여청)이 춘 부채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최고라고 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울동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마음은 '우리가 17세대, 나이는 들어가지고 뭘 한다는 거니?' 하는 식으로 주로 아들들이 추는 부채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해제단 식구들의 울동, 부산제단 권사님들의 부채춤, 그밖에 다른 여러 지방제단 식구들의 열정에 우리들도 할 수 있고,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어버이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셨잖아요. 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제단의 귀염둥이가 되든, 뼈에로가 되든 광대가 되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리라 다짐하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리라 결의하였습니다.

김선에 남은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직접 구상하고 안무와 울동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시간 맞추는 것이 제일 문제였고 팀원 중에 67세 언니께서 밀실에 계시므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울동을 배우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2달 동안은 점심 시간 1시간 중에 20분 연습, 식사 25분, 나머지 가고 오고 빼듯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생각하면 기뻐했습니다.

저희들의 공연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주)해동의 서보목 대표님 이하 여러분들의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 열렬한 응원과 방송실 김형준 실장님 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이 글로 감사드립니다. 부채춤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끝으로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이 해주시는 박철수 총무님, 식구들 맞이할 준비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시는 성주희 부인회장님, 향내나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 제단의 안팎을 단장하는 여청 여러분들, 설레는 맘과 새웃으로 단장을 하고 본부제단으로 향하시는 식구 어느 한 사람도 귀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아름답고 보배이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은 개개인이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내 맘속에 가장 귀한 보물로 간직하면서 끝까지 손에 손잡고 나아갑시다.*

변숙자 / (주)해동 산업

세월호 참사 후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정신세계를 담당하는 종교계에서 큰 회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변화 하나 : '회초리 기도회'

"세월호 참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원로목사님들께 호소합니다. 하디 선교사에 의해 원산에 불었던 회개의 운동이, 길선주 목사에 의해 평양을 휩쓸었던 회개의 운동이, 이 땅에 다시 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천국 가시기 전에 이 일을 위해 남은 생애를, 목숨을 던져 주십시오."

이것은 범국민적 "나부터 회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최복규 목사, 이하 원로목사회)와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총재 강지원 변호사, 대표회장 강영선 목사, 이하 범죄예방본부)가 15일 오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회초리 기도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며 종아리에 회초리를 치는 시간을 갖으면서 나온 말이다(크리스천 투데이 5월 15일자).

변화 둘 :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 만들겠다'

또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승 스님, 종지협)는 5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종지협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일부 지도층들은 빨리 생각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보신문 5월 15일자).

나부터 회개하면서 스스로 회초리를 때리고, 생명 가치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은 좋다. 설마 이러한 결의에 찬 대회가 이번에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어버리는 우리 국민의 성품이 걱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빛어진 전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개조 차원으로 승화시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말로만 머물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앙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 회, 82세에 운전면허를 따다

영생의 역사가 승리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이 이곳에 와서
승리의 하나님인 구세주를 만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란 말인가!
나는 이제 살았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다.

첫 도전에 필기시험 통과

며칠 후 필기시험을 봤다. 컴퓨터라고는 해보지 않았는데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것이라 조금 난감했지만 결과는 첫 도전에 착 합격해버렸다. 설마 첫 번째에 합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남편이 모는 차 옆에서 앉아 있다 보니 교통법규 지식이 저절로 생겼던 모양이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듯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코스 및 주행 강습을 받았다.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았다. 사실 나이 많은 것이 부끄러워 숨기려고 강사님들에게 조용히 넘어가달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며 감춰야 하는 일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드러내어 알려야 합니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 이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오히려 더 알려야 한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면허를 따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으니 어떤 난관이 있어도 도중하차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다짐했다. 절대 '나이 때문에 안 되겠어'라는 약한 마음은 먹지 않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중도하차와 포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자식인데 운전면허는 문제없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마음을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기능시험도 어렵지 않게 한 번 만에 합격했다.

근데 주행에서는 세 번째에 가서 합격하게 되었다. 그러자 학원에서 경사가 났다면서 "이제 합격까지 하셨으니 우리 학원의 자랑거리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최고령 합격자는 남자 74세였다는 것이다. 그런



면허를 딴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전하고 있는 김혜선 권사

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82세로 합격하게 되니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는 젊었다. 내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참고 또 참고 감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해보니 마침내 합격이라는 마침표가 찍어졌다. 그렇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실력도 없이 주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는 안하기로 했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실력을 쌓고 닦아서

내 실력이 있을 때 그래서 자신만만할 때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도 도와달라고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다.

사실 이번 이 도전은 나와야의 전쟁이었다. 부끄러움과 하기 싫음을 극복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전쟁터였던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다. 참고 또 참는 것, 이런 마음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배운 무기다.

나에게 이렇게 젊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인내하는 마음도 길러주신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들의 도전은 따로 있는 것이다. 내가 운전면허를 딴 것은 그 도전에 비하면

새 밭의 피도 안 되는 그러한 도전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문에 들어가야만 하는 도전이며 우리들은 그 도전에 임하는 용사들이다. 그 목표를 위해 평생을 달려 왔다. 마지막 이 관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천군들이다. 우리에게는 나이가 없다. "나는 젊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며 승리의 그 날까지 인내로써 이기고 또 이기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구세주님은 보광하신 후에 더욱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다. 매매를 위해 내놓은 집이 그렇게 안 나가더니 갑자기 팔리지를 않나, 3억에 산 집을 6억에 되팔게 해주시지를 않나, 모든 어려움을 적적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무슨 일이든 고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신 구세주 조희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역사가 승리제단에서 이루어진다. 이 기쁜 소식이 이곳에 와서 승리의 하나님인 구세주를 만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란 말인가! 나는 이제 살았다. 영생의 희망이 차고 넘친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다.

돌아켜보면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조상님들께 감사를 안 드릴 수 없다. 이제는 내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상님들의 구원이 달려 있으니 정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모두 구세주 은혜 덕분이다. 영생활 때까지 기여이 참고 이겨낼 것이다. 우리 모두 그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자!*

김혜선 권사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김삼욱 編著

영모님은 새끼 손가락을 걸며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같이 살자고 했다!!!

삼천년성의 출현

정가: 18,000원

박태선 영모님은 새끼 손가락을 걸며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같이 살자고 했다.!!!

"내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을 석방시켜 모처에 모셔냈다."(1982.3.8)

"이제는 길도 다 왔다. 이긴자는 내가 안보이는 데서 키워서 모처에 모셔냈다. 이제는 순종만 하면 원죄까지 다 씻아서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 그 영마 곁에서 설교를 할 적에 가서 듣고 구경만 하면 되는가. 이제는 일어야 되는 것이다."

(1981.12.28)
-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 -

대형서점 절찬 판매중